

그 많던 멧돼지·노루 어디로 갔을까

무등산 누비던 야생 동물수 급격히 줄어 탐방객 늘어 환경파괴... 생태 조사 필요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왼쪽)이 2일 새로 제작한 제복을 입고 등산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증심사와 원효사 지구 직원 20명에게 시범적으로 제복을 입게 한 뒤,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전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주 발견되었던 멧돼지, 노루, 고라니, 오소리 등은 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고 다만 산토끼, 고슴도치, 들쥐, 두더지, 다람쥐 등은 다른 포유류가 감소하는데 비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서식했지만 근래에 이르러 많이 사라졌다. 뱀도 다른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렁이, 능구렁이 등은 좀처럼 볼 수가 없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무등산 생태계의 변화상이다.

하지만, 무등산 탐방객이 해마다 늘면서 생긴 생태 환경 변화로 터트 대강인 야생동물들의 수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무등산을 오르면 딱따구리가 나무 짚는 소리로 듣고 고라니와 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1주일에 3번 이상, 무등산을 찾는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김정민(72) 제1수원지 활동대장은 “좀처럼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 없다”며 “무분별하게 늘어난 탐방로 때문에 동물들이 떠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7년 현재 광주에서 지정하고 있는 무등산 탐방로는 15개 노선 42.5km. 그러나 2003년 66만 2천 명이던 탐방객이 2006년 85만 3천 500명으로 3년 새 30%나 급증하면서 ‘갯길’(비지정탐방로)도 크게 늘었다.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는 이런 갯길이 21개 노선 21.5km나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생태환경 변화에

다른 생태조사는 지난 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관련 학계에서는 동·식물의 개체수 감소에 따른 피해는 먹이사슬의 정점인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생태환경조사와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두표(52·호남대 생명과학과 교수) 한국조류학회장은 “나비 개체수가 줄어들면 이를 잡아먹는 새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새의 개체수

가 줄어들면 천적이 없어진 해충이 증가한다”며 “피해는 결국, 먹이사슬의 최정점인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고 보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연내에 무등산 생태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탐방로 수정 및 휴식시설 도입 등 다양한 야생 동물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서구 ‘노는 땅’에 주차장·텃밭 조성

광주시 서구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건물착공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노는 땅)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구는 이를 위해 20일까지 공한지 일제조사를 한 후 공한지 소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하고 쓰레기를 적치·방치하거나 무단 소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는 하지만, 관 주도의 환경정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변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해 공한지에 주차장 설치, 텃밭 조성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던 공한지를 주민들과 함께 정비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빛고을’ 시청사 봄 밤을 밝히다

내달 말까지 야간 조명

“빛고을” 광주시가 2일 저녁 7시 시청사의 야간 조명을 일제히 켜고, 시청사는 이날 “다음달 말까지 일몰에서 오후 9시까지 야간 조명을 켜서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봄 밤을 수놓을 조명은 청사 외벽에 설치된 투광 조명등과 상징이치 조명등 131개를 비롯해 옥외 가로등과 조명등 489개, 옥

내 경관 조명등 311개 등 모두 931개에 달한다.

시는 청사앞 분수대에 설치된 수중펌프 7대도 함께 가동해 분수와 붓꽃과 철쭉이 한데 어울리는 아름다운 봄 밤을 연출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셋째 낳으면 건강보험 지원

남구, 출산 장려 위해 금호생명과 협약

광주시 남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 출산 가정에 대해 ‘신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남구는 2일 “전국 일선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광주 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금호생명을 협약업

체로 선정하고 올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부터 소급적용해 20일부 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 조건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지난 1월 ‘광주 남구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출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각종 위험사예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비롯, 재해장애비 2천 500만원, 암 치료비 3천만원, 암 방사선·약물치료비 480만원, 종대 화상치

료비 1천만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0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주로 발생하기 쉬운 화상이나 골절, 영구치 상실, 폭력사고, 입원비 등에 대한 지원도 된다.

남구는 1년 평균 관내에서 셋째아 출산이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올 한해 3천400만원의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남구는 2000년 기준 출산율이 34%에서 2006년에는 23%로 11%나 감소하는 등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남구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육 지원과 달리,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미래형 제도”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매일동 유동단지 우회도로 개통

광주시 서구청(청장 전주연)은 2일 서구 매일동 종합유동단지 일구에서 송암공단과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이 도로는 폭 8m, 길이 180m 일방통행도로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서구청(청장 전주연)은 2일 서구 매일동 종합유동단지 일구에서 송암공단과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통했다. 이 도로는 폭 8m, 길이 180m 일방통행도로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센터에 봄꽃 구경 오세요

꽃박람회 개막 이후 나흘새 2만5,500명 찾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2007광주 국제봄꽃박람회’가 인기가 높다. 개막이후 2일까지 4일동안 2만5천5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린 것.

휴일인 1일에는 1만여 명의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중국·일본 정원 등 14개 테마존에서 5천여종 50만본의 화훼류를 관람했고, 장애우·소년 소녀가장 등 500여명도 봄꽃 나들이에 가세했다.

가장 인기있는 테마존은 지역 꽃농가에서 출품·전시한 ‘철쭉화원’과 ‘선인장 화분’ 등 한나씩 구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대행사도 열린 전국 토괴어리위

크숍, 한국야생화특감 등도 인기를 끌었다. 특별무대에서 통기타 가수, 스포츠 댄스팀, 색소폰 동호회원 등이 나서 꾸미는 이벤트 행사에도 관람객들이 몰렸다.

꽃을 주제로 하는 문화상품판매장, 화훼 용품점, 야외정원, 향토음식관 등에도 발길이 이어졌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화훼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화훼수출 증대 및 판로 다변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611-2230.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총포·화약류 불법행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전남지방경찰청은 2일 “총포·화약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총포·화약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포·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는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각급 경찰관서에 전화·방문·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연락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총포·화약류가 범죄 및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동차 불법 전조등 단속

전남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고휘도방전) 전조등 등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매주 2~3회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HID 전조등 등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이 늘면서 야간 안전운행방해와 교통사고 발생 초래 가능성이 큰 만큼 건교부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장착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생모집기간

- ▶ 개강일시 : 4월 19일(목) 19:00
- ▶ 모집기간 : 3월 20일(수)~4월 19일(목)
- ▶ 수업기간 : 4월~11월(총 9개월)
- ▶ 수강료 : 210,000

2. 연수생모집대상

- ▶ 1.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 2. 한국국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인 자
- ▶ 3. 1년 이상 외국어 학습 경험
- ▶ 4. 기타학교 재가자외에는 상사 우선

3. 원서접수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258-2885, HP: 011-514-4169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이‘새움’새움명상고시원 중수생학 수년간 최고급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5개 학원 제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작강*

4월 2일 첫강원(주말)이벤트 *직접지 무료수강생이벤트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움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세균강염방지를 위한 환경대책에 만족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을 99.99% 제거하여 청결·위생·건강을 지켜드립니다.

Blue Green Machine

신뢰성 높은 세균 제거! 안전·건강! 환경·위생!

1. 세균 제거: 세균을 99.99% 제거하여 청결·위생·건강을 지켜드립니다.

2. 공기 정화: 공기 중의 먼지, 꽃가루, 동물 털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냄새 제거: 음식물 냄새, 흡연 냄새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곰팡이 제거: 곰팡이를 제거하여 실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주다물바이오백 전남 북종판 0621 531-2811 011-9616-5258